KBO 홈런왕 경쟁 '점입가경'

LG라모스 13개서 주춤…KT로하스 14홈런 1위 점프
KIA '효자 용병' 프레스턴 터커 11홈런 4위 '호시탐탐'
토종 거포 자존심 나성범 12개, 박병호·강백호 10개

잠잠하던 '거포' 박병호(키움)의 홈런포가 살아났다. 반면 초반 무서운 페이스로 연일 담장 밖으로 타구를 날려버리던 로베르토 라모스(LG)는 주춤하고 있다.

KBO리그 4년 차를 맞은 멜 로하스 주니어(KT)는 꾸준히 장타를 생산하며 홈런 단독 1위(14개)에 올라있다.

시즌 초반 슬럼프와 부상이 겹치며 주춤했던 박병호가 최근 3경기에서 홈런 3개를 터트리며 홈런왕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23일 잠실 LG전에서 홈런 2방을 포함해 4안타를 때려내며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다.

손목과 허리 통증으로 3일 간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던 박병호는 10홈런(5위) 고지를 밟으며 8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KBO 역대 23호.

2012시즌 이후 꾸준히 30홈런 이상을 기록했던 박병호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 올리며 통산 6번째 홈런왕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투양타 스위치 히터인 로하스는 올해 KBO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로 꼽힌다. 42경기에서 타율 0.385 14홈런 40타점을 기록하는 괴력을 자랑하고 있다. 장타율(0.716)과 출루율(OBP)를 더한 OPS는 1.139에 달한다.

좌투수(타율 0.436)와 우투수(0.384)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타자로 5홈런, 왼쪽 타석에서 9홈런을 때려냈다.

반면 5월에만 10홈런을 기록했던 라모스는 6월 들어 상대 투수의 집중 견제와 크고 작은 부상 등으로 인해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다. 최근 10경기에서 1홈런, 6월에는 3개의 아치를 그렸다.

최근 6경기에서 10개의 삼진을 당하는 등 약점이 노출됐다는 말도 나오지만 여전히 라모스는 타율 0.351 13홈런 31타점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외야수 나성범도 12방의 홈런을 펜스 밖으로 날리며 홈런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가 11홈런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병호와 함께 이제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타자인 강백호(KT)도 10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과 김하성, 박동원(이상 키움), 강진성(NC) 등이 9홈런으로 뒤를 쫓고 있다.

무더운 여름과 함께 몰아치기에 능한 박병호가 페이스를 바짝 끌어 올려 2년 연속 홈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1

메이저리그, 7월 24일 또는 25일 개막

7월2일 캠프 소집 팀당 60경기 체제
AL, NL 구분 없이 인근팀끼리 대결

메이저리그 2020시즌 개막이 가시화하고 있다. 선수노조는 사무국이 요청한 60경기, 7월2일 스프링캠프 소집에 동의했다. 현재로써는 7월24일 개막이 유력하다.

미국 언론 ESPN은 24일(한국시간) "선수노조가 7월2일 스프링캠프 소집과 정규시즌 60경기 진행에 동의했다. 현재는 안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7월24일이나 25일, 60경기 체제로 시즌이 개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직후 사무국도 "2일에 캠프가 소집되며, 60경기 일정으로 24일 혹은 25일 시즌이 개막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공중보건 및 전염병 전문가, 업체들과 함께 안전한 시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수단 훈련은 캠프지에서 진행되며 원정경기를 최대한 줄여 인근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60경기 일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올해, 다시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커미셔너 직권으로 시즌을 개막할 것이라고 알리며 선수노조에 7월2일 스프링캠프 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 매뉴얼 동의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선수노조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2020시즌 메이저리그는 7월2일 스프링캠프를 소집한 뒤 7월말 60경기 단축체제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무관중으로 펼쳐지며 기존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 구분 없이 연고지 인근 지역팀간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로 나뉘는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내셔널리그 팀들도 지명타자 제도를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여러 뇌관도 존재한다.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해 일부 고액연봉 선수들의 보이콧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선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도사리는 상황이다.

류현진의 소속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우 메이저리그 유일한 캐나다 연고팀으로 현재 국경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토론토는 플로리다 스프링캠프지에서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지역마저 코로나19로 시설이 폐쇄된 상태라 고민이다. 급기야 미국 내 새로운 지역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트넘 손흥민 '리그 8호 도움'

웨스트햄전 2-0 승 견인…토트넘 8경기 만에 승리
손, 골망 흔들었으나 VAR결과 오프사이드 아쉬움

손흥민이 리그 8번째 도움을 올린 가운데 토트넘이 8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다.

토트넘은 2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상대 자책골과 해리 케인의 추가골을 묶어 2-0 승리를 거뒀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근 7경기에서 2무5패(승부차기 패배 포함)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8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승리했던 경기는 지난 2월 16일에 열렸던 아스톤 빌라전이었다.

또한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데이비드 모예스 웨스트햄 감독을 상대로 무패(14경기 · 9승5무) 기록을 이어나가면서 천적임을 입증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12승9무10패(승점45)가 되면서 7위에 올랐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 첼시(15승6무9패?승점51)와의 승점 차도 6점으로 좁혔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득점 없이 패배한 웨스트햄은 7승6무18패(승점27)로 17위에 머물렀다.

이날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45분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하지만 1-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7분 정확한 패스로 케인의 골을 도우면서 리그 8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0-0으로 답답하게 흐르던 전반 막바지 토트넘 공격이 번쩍였다. 전반 45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VAR 결과 손흥민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다.

후반전 들어서도 토트넘의 공세는 이어졌다. 토트넘은 최전방의 케인을 활용해 선제골을 노렸지만 후반 7분과 후반 14분 케인의 슈팅이 연속해 골문을 벗어났다.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이 없던 토트넘은 상대의 실수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지오바니 로 셀소가 왼발로 시도한 크로스가 웨스트햄의 토마시 수첵 발에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넘으면서 자책골이 됐다.

선제골을 내준 웨스트햄은 후반 25분 기술이 뛰어난 펠리페 안데르손과 란지니를 넣으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후반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제로드 보웬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면서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실점 위기를 넘긴 토트넘은 후반 37분 역습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 공격을 막아낸 뒤 이뤄진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이 전방의 케인에게 정확히 패스했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된 케인은 침착하게 슈팅, 추가 득점을 기록했다. 케인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리치 시티전 득점 후 약 6개월 만에 EPL에서 골 맛을 봤다.

케인의 골을 도운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8번째 도움을 올리면서 모든 대회 통틀어 26번째 공격포인트(16골10도움)를 기록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후반 41분 손흥민을 빼고 중앙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를 넣으면서 수비를 강화했다. 토트넘은 남은 시간 동안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4개월여 만에 승리를 챙겼다.

한편 리그 3위인 레스터 시티는 재개 후 치른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키움, 강정호 거취 놓고 딜레마

구단 결정에 선수생활 달려
계약 · 트레이드 등 고심 중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 KBO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가 사죄 기자회견까지 마친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키움 구단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BO리그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의 보류권은 친정팀인 키움이 쥐고 있다. 징계도 확정된 만큼 키움의 선택에 따라 강정호의 거취도 결정된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키움이 강정호를 품기로 한다면 정식계약을 맺고 징계가 끝날때까지 기다린 뒤 내년 시즌 중반부터 그를 기용하면 된다. 반대로 자유계약선수로 풀어 강정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강정호는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지만 러브콜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한 뒤 다른 팀과의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는 제3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KBO 징계와는 별도의 키움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키움은 장고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약 없이 질질 끌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키움 내부적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적 여론이 강한 점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늦어진 점 등에서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과거 구단이 성장시켜줬고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포스팅 비용 500만 2015 달러를 안겨준 점, 법적 다툼 가능성, 선수생활을 끊어버렸다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 등은 결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어떤 결정도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손혁 감독도 강정호 관련 질문에 "현장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모든 판단은 구단에 맡긴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조코비치 주최 테니스 대회 출전선수 등 무더기 확진자
스포츠계 다시 코로나 공포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3 · 세르비아)가 주최한 테니스 대회로 인해 스포츠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조코비치는 최근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가 코로나19로 중단된 가운데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를 열었다. 지난 13일부터 세르비아 베오그란드에서 1차 대회가 열렸고 20일부터는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2차 대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2차 대회 중 문제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를 앞두고 세계랭킹 19위의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드리아 투어는 즉각 중단됐지만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대회 주최자인 조코비치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했다. 이에 앞서 보르나 초리치(크로아티아), 빅토르 트로이츠키(세르비아)를 비롯해 조코비치의 트레이너, 디미트로프의 코치 등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은 테니스 경기 외에도 클럽에서 파티를 열고 농구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24일(한국시간)에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는 세르비아 출신 니콜라 요키치(덴버)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요키치는 최근 조코비치가 주최한 농구 이벤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